

연간 9만t...전남 연안 폐각 처리 골머리

〈글·교막깍데기〉

처리공장 용량 부족 1만7000t 방치 바다 살포·산업용 재활용 방안 시급

전남 연안이 골과 꼬막깍데기 등 연간 10만에 육박하는 폐각(貝殼)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료나 채묘, 매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나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전체 발생량의 19%인 1만7000t 가량은 해안가 등에 방치되고 있어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와 고흥, 보성, 해남 등 전남 해안에서 발생한 폐각은 모두 9만t에 이른다. 이 중 6만2000t은 폐화석 비료

등으로 처리됐고 4900t은 분쇄된 뒤 농경지 등에 살포됐다. 굴 생산을 위한 채묘(採苗)와 매립된 경우도 각각 2500t, 3100t에 이른다. 나머지 1만7200t(19%)은 이렇다할 대안책 없이 해안가 등에 방치되고 있다. 고흥 2곳, 해남 2곳, 여수 1곳 등 도내 5개 폐각처리공장에서 밀려드는 폐각을 처리하고는 있으나 발생량을 모두 소화하기 힘든 데다 생산되는 폐화석 비료가 작물 성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토질을 개선하는 수준이어서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장 가동도 농번기에 집중돼 농한기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하는 곳이 적지 않다. 여기에 폐각 운반비와 자원화 처리 비용으로 t당 2만원의 물류비가 필요해 폐각 가공업체들의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여수수산인협회 폐각가공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에 과다한 폐각 처리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폐각처리공장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시는 도내 폐각발생량의 75%를 차지하는데 과다한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폐각처리 시설 확충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으나 해수부가 재검토를 요구해 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굴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 통영시가 폐각자원화를 위해 공장건립을 추진했다가 운영비 등 재정 부담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난 등을 이유로 예산 40억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한 전례가 악재가 됐다. 이에 전남도는 폐각 처리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폐각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등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넘쳐나는 폐각을 그대로 둘 순 없어 농가 비료와 어장 살포, 산업용 활용 등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여수시에 대해서는 폐각공장 건립 타당성용역을 시행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낚시를 하다 실종된 60대를 경찰이 인근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간신히 구조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33만㎡ 갈대숲서 야밤 2시간 30분 수색 해남경찰도 실종 낚시꾼도 탈진직전 구조

18일 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해남군 화산면 고천암호에서 낚시를 하던 임강하(60)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임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동네 선배 최홍식(64)씨와 함께 낚시를 하

러 고천암 갈대숲에 틀렸으나 2m 이상 자란 갈대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 최씨는 임씨를 찾을 수 없자 오후 7시께 먼저 보트를 타고 육지에 나와 오후 8시50분께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임씨가 실종된 갈대숲은 면적이 33

만㎡ 이상으로, 인근 주민들도 접근을 꺼리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해남 화산파출소 직원들은 임씨가 당초 함병증으로 인한 투석환자로 구조시간이 지체되면 생명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휴대용 방송장비와 서

치라이트를 이용해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2시간30분을 뒤진 끝에 밤 11시40분께 탈진한 임씨를 찾을 수 있었다. 화산파출소 한남석 경위는 “임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탈진 등이 우려돼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사람 키보다도 큰 갈대숲 멀리에서 구조를 바라는 임씨의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특별한 생일잔치 원한다면 미역의 고장 생일도로 오세요



2011년 설치 지름 4m 케이크 조형물 인기

특별한 생일잔치를 원한다면 연도 생일도가 어떨까. 생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일(生日)’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대형 케이크 조형물이 있기 때문이다. 여객선을 타고 생일도 앞 해상에 도착한 피서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조형물이 있다.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옥상에 설치된 높이 6m, 지름 4m의 케이크 조형물(사진)이다. 피서철을 맞은 요즘 완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백운산(해발 418m), 천혜의 절경인 금곡 해수욕장

과 함께 생일도의 명물이 됐다. 얼큰하게 술에 취한 관광객들이 선착장 앞에서 케이크를 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진을 찍는 등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이 조형물은 지난 2011년 당시 명장이던 정유승 환경복지과장이 미역의 섬 생일도를 널리 알리고자 설치했다. 정 과장은 “생일도는 미역의 고장으로 유명하고 미역국은 생일 때 한국인이 꼭 먹는 음식이라는 점과 국내 하나뿐인 지명에 착안해 케이크를 만들게 됐다”고 당시

를 회상했다. 제과점이 없는 생일도 주민들이 이 조형물 앞 선착장에서 조촐한 생일파티를 열곤 한다. 생일도는 약산면 당목 선착장에서 백길로 25분 거리에 있으며 인구는 900명이다. 백운산 능선을 따라가면 드넓은 청정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자연을 즐기며 여유로운 산행에 안성맞춤이다. 호안도로를 따라 섬을 둘러볼 수 있고 서부 쪽(금곡마을)에는 스펀지처럼 푹신한 모래로 조성된 안락하고 포근한 해수욕장이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제13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에서 전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거문도 뱃노래’를 공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축제에는 현지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여수시 제공>

전남 어선 규모화·기업화 수년째 표류

수산업법·어민 재정부담 걸림돌...도 국비 지원 건의

전남도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어선 규모화·기업화 사업이 관련법 제함과 어민 재정부담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 정수 제한 조치 완화와 어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 어선어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기업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선 1선주 체제’에서 3~5척이 선단을 이뤄 기업화를 하고 10t 미만 소형 어선을 중대형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어촌계, 연안

어업 업종별 대표자 등을 수심차려 교육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영광지역 연안 어선 3과 5t 등 2척을 합해 8급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형어선 24척이 있는 신안 가거도 어민을 대상으로 3~5척을 1개 선단으로 하는 기업화·규모화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고령의 부부 중심 1어선 1선주 형태가 대부분인데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규모화에 선했 나사기가 쉽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모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에도 묶여 설사 대형 어선을 건조해도 조업에 나설 수 없다.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은 10t 미만, 근해어업은 10t 이상으로 규모가 제한돼 있다. 또 10t 이상 어선을 보유해도 허가정수가 정해져 그 이상은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도내 연안어선은 1만5796척에 이르지만 근해어업 허가정수는 총 507척에 불과하다. 근해어업은 전국 해역이 조업구역이며 연안어업은 해당 시도내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허가권자는 각각 장관과 시도지사다. 전남도는 “어선어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창립 2돌...물동량 세계 16위

부채비율도 크게 낮춰 2주년 기념식 도약 다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이하 공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다. 공사는 지난 16일 내부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사진>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컨테이너 215만4000TEU 등 총 물동량 2억 4200만t을 처리해 부산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16위의 복합물류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출범 당시 1조812억 원이던 금융부채는 현재 2222억 원이 감소한 8590억 원으로 크게 낮췄다.



권종수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컨테이너 128만TEU를 처리하는 등 연말까지 컨테이너 230만TEU를 포함 총 물동량 2억 5200만t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며 “앞으로도 미래형 친환경 항만, 초대형 글로벌 항만, 고부가가치 항만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희진기자 py4079@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매주 월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